

남성 퇴직자의 생활태도 유형화 및 유형별 퇴직후 적응도*

Life Attitude Patterns and Post-Retirement Adaptation among Men Retirees*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연수연구원 성 미 애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 수 옥 선 화

Research Institute of Human Ecology, Seoul Nat'l Univ.
Researcher : Sung, Miali
Dep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Seoul Nat'l Univ.
Professor : Ok, Sun Wha

■ 목 차 ■

- | | |
|---------------------|---------------|
| I. 문제제기 | V. 연구 결과 및 해석 |
| II. 관련 연구 고찰 | VI. 결 론 |
| III. 연구 문제 및 변수의 정의 | 참고문헌 |
| IV. 연구 방법 | |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is to classify retiree's job, leisure, and family attitude;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each attitude types; and to examine the retirement adaptation level of each attitude type.

The major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four attitude types can be categorized: 'the job-involved attitude type', 'the total positive attitude type', 'the leisure positive attitude type', and 'the total negative attitude type'. Second, the result of the discriminant analysis shows that 'the job-family experience before retirement and number of unmarried children' element was the most crucial in classifying the retiree's attitude. And 'the retirement reception and individual resource element' was in orders of discrimination power. Third, 'the total positive attitude type' is the highest level of retirement adaptation.

주제어(Key Words): 생활태도 유형(life attitude patterns), 퇴직 후 적응도(post-retirement adaptation)

* 본 논문은 2002학년도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의 일부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I. 문제 제기

1960, 70년대 우리 사회의 산업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현 퇴직 남성들은 이전 세대와 달리 조직생활과 단절되는 퇴직이라는 경험을 통해서 노년기에 진입하는 최초의 세대로, 퇴직 이후의 생활에 대한 어떠한 준거들도 갖지 못한 상태에서 퇴직에 따르는 부양자 역할 상실 및 지위 변화를 경험하면서 노년생활에도 적응을 해야 하는 첫 세대가 된다.

따라서 이들 퇴직자가 지내 온 사회구조 및 기업 구조의 맥락을 벗어나 퇴직자 스스로가 직업, 가족 및 개인의 삶을 어떻게 인식하고 재편성해 가는지를 살펴보는 퇴직 후 적응 과정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특히 직업이라는 관료조직은 합리적 조직유형으로 효율성을 극대화시킨다는 측면에서는 기능적이여서 조직성원들에게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규정해준다(전병재·안계준·박종연, 1995, 69-70). 그러므로 인생의 성인기와 중년기를 보낸 조직을 떠나서 퇴직을 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로든 명확한 규정이 없는 퇴직 후 일상생활에서 새롭게 삶을 재구성해야 한다는 발달과업을 주는데, 이때에는 어떠한 생활태도를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즉 생활태도에는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형성된 개인의 신념이나 판단이 내재되어 있으며, 행동을 방향짓는 측면이 있다. 더욱이 생활태도는 상황에 따라, 사회적 영향에 따라, 자기 경험에 따라 변화(정재희, 1995)하기 때문에, 개인의 경험이 축적되어 이질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퇴직 이후 시기를 연구하는 데에 유용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퇴직자를 대상으로, 남성들의 인생구조에서 핵심적인 구성요소가 되는 직업, 여가 및 가족에 대한 태도(Levinson, 1978, 44; Kelly, 1996, 104)를 축으로 하여 생활태도를 유형화 한 뒤 유형별 퇴직 후 적응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남성 퇴직자가 이전의 직업 및 가족생활 경험에 따라 아주 다양한 생활태도를 갖고서 퇴직생활을 하고 있음을 밝힐 수 있으

며, 이러한 정보는 남성 퇴직자들의 삶의 질 향상 교육 프로그램과 퇴직자를 위한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는 퇴직이 한 남성의 생활 전이이기는 하지만 가족이 갖는 체계적 성격 때문에 다른 가족원, 특히 배우자도 적응의 문제를 겪게 되는데 이 부분을 다루지 못한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II. 관련연구 고찰

1. 생활태도

태도는 사회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개인 행동의 변화와 다양성을 해명하고자 사회학자 Thomas (1918)가 처음 사용한 개념(정재희, 1995)으로, 경험을 통해 변화하며 신념이나 판단이 내포되어 있어 행동을 방향화 한다(양한주, 1998).

Triandis(1971, 14)는 태도를 단일차원으로 측정해서는 태도가 갖는 질적 속성을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인지적, 평가적, 행동적 요인으로 구분하였는데, 인지적 요인은 대상에 대하여 각자가 갖고 있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혹은 중립적인 신념과 지식 등을 말하는 것이고, 평가적 요인은 대상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로 좋은지 싫은지의 평가를 말하는 것이며, 행동적 요인은 대상과 관계있는 호의적 또는 협오적으로 취하게 되는 행동이나 의도를 말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남성의 삶에서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직업, 여가, 가족이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퇴직자의 생활태도를 구성하였다.

1) 직업에 대한 태도

한국 사회는 1960년대 이후 비교적 짧은 기간에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직업중심적인 산업사회로 변모되어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나 기업이 개인, 특히 남성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은 그 어느 때보다 강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

의 경우 아직도 전통적 가족주의 의식에서 가장의 일터에서의 성공과 출세가 가족을 위한 것이라는 명분 하에 강조되어 왔다(한경혜, 1997, 49). 그러므로 남성에게 직업은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물질적인 삶의 토대가 될 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자아정체감과도 연결되는 것으로, 이러한 직업에 대한 태도에 따라 퇴직의 의미와 퇴직후 생활이 영향을 받는다(서병숙, 1996, 114).

그러나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그 직업이 상당한 명예나 권위 또는 소득을 가져다주는 것이 아닌 이상 사회적으로 노인의 직업활동을 바람직한 것으로만 보지 않는 측면이 있다(권문일, 1996). 또한 기업은 남성에게 출세와 발전의 발판이 되어 희열과 만족감을 제공해 주는 반면, 조직에 적응하지 못해 낙오된 사람에게는 갈등의 원천으로 작용할 수 있다(손승영, 1997). 그리고 이러한 직업생활 경험 때문에 퇴직후에는 직업 역할에 미련을 보이지 않는 태도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퇴직후의 직업에 대한 태도는 퇴직전 직업생활 경험과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서 직업에 의미를 두며, 선호하는 생활이라고 평가하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재취업을 하고자 하는 의도나 행동을 보이는 태도와 그렇지 않는 태도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2) 여가에 대한 태도

원래 퇴직으로부터 시작되는 노년기는 새로운 흥미와 관심을 개발하여 이전의 어느 시기에도 이룩 할 수 없었던 성취를 이룰 수 있는 시기이다(유안진, 1992, 383). 따라서 성인기에서 노년기로의 이행은 활동영역의 상실이 아니라 활동영역의 재구성을 포함한 생활구조의 변동으로, 직업생활에 전력을 경주했던 생활에서 가족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비중을 옮기는 것이다(서병숙, 1996, 193).

그러나 기업정년제는 재정적 지원, 재정적 욕구, 노동 능력과 관계없이 일정 연령에서 고령 피용인을 일률적으로 퇴출시키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퇴출로 인한 여가의 증대는 비자발적으로 선택된 것이라는 견해(권문일, 1996)도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에

서는 증가된 여가시간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연결되지 못할 것임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퇴직후의 여가에 대한 태도는 퇴직을 하나의 기회로 삼고서 여가에 의미를 두며, 여가를 선호하고, 여러 가지 여전이 형성된다면 여가시간을 늘리고자 하는 의도나 행동을 보이는 태도와 그렇지 않는 태도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3) 가족에 대한 태도

가족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관계성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최선의 삶의 방식이 제도화된 것이다(이광규·김태현·최성재·조홍식·김규원, 1996, 95). 그러므로 가족이 중심적인 조직망이 되는 퇴직 기에는 남성 퇴직자의 가족에로의 통합이 가장 중요한 사회 심리적 과제가 되며,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주요 요인이 된다(장인협·최성재, 1992, 9).

하지만 시간과 에너지를 바깥으로 쏟으면서 ‘아버지 부재의 가정’, ‘심리적 편모가정’을 이루어 온 남성이 퇴직 후에 배우자 및 자녀와 화합하여 산다는 것은 쉽지가 않다(문소정, 1995, 340). 즉 가족관계는 퇴직 이후에 새로이 정립되며, 상호작용 경험이 축적되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과거의 가족관계의 질이나 상호작용의 수준에 따라 현재의 가족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퇴직후의 가족에 대한 태도는 직업 때문에 소외되었던 가족에 의미를 두고, 가족원과의 상호작용을 선호하며, 실제 가족원과 보내는 시간을 늘리거나 지원하고자 하는 의도나 행동을 보이는 태도와 그렇지 않는 태도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2. 생활태도 유형과 관련되는 변수

1) 개인특성 변수

(1) 연령

연령에 따라 개인의 정서적, 환경적 조건이 달라지며, 지원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김외숙, 1991), 개인의 경험과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생활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연령에 따라 삶의 기회가

달라지는 연령층화된 사회에서 퇴직자의 연령은 상황을 지각할 때 객관적인 지표가 되며, 그러한 지각에 따라 퇴직 이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심리적 자원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생활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2) 출신지역

출신지역에 따라서 어린 시절에 체험했던 삶의 양식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퇴직후 생활태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도시지역에서는 근대 산업화된 생산양식이 주류를 이루며, Kahn(1989, 21)이 말하는 직선적이고 발전적인 시간개념을 조장하기 때문에 퇴직 이후 증가된 여가시간을 비생산적이고 무의미한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농촌지역에서는 Kahn(1989, 21)이 말한 계절 순환적인 시간개념을 강조한다. 따라서 이러한 생산체제와 시간개념을 체득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낸 경우, 비록 조직화되고 생산성이 강조되는 직장생활에서 인생의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전형적인 도시출신과는 달리 순환적인 시간개념에 더 친숙할 수 있다. 또한 퇴직이후 주어지는 여가시간을 어린 시절의 향수를 구체화시킬 수 있는 기회로 보는 여가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3) 교육수준

교육수준은 개인에게 상이한 삶의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뿐만 아니라 보다 융통성 있는 가치를 갖게 하며,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 비해 공동체 내에서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유지하고, 향상시키고자 하는 속성이 있으므로(Harris & Cole, 1980, 38), 퇴직 후 삶에 대해서도 상이한 태도를 견지할 것이다.

(4) 종교생활기간

종교는 삶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도록 가르치며, 사회관계망을 확대시키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종교생활을 하는 퇴직남성은 과거 직업의 경험이나 가족에 대해서 긍정적 태도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여가 시간에도 종교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가에 대해서도 긍정적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그런데 종교의 의미는 생활 속에서 구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종교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종교생활을 지속해 온 기간이 생활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5) 가정경제만족도

현대 소비사회에서 재산은 단순히 물질적인 토대를 제공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여러 가지 재화를 구매할 수 있는 자원의 성격을 갖는다. 특히 퇴직은 소득의 상실이나 급감을 의미하기 때문에 퇴직남성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퇴직후 생활에서 중요한 자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한 재산 수준에서도 개인마다 갖는 충분함의 수준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퇴직으로 인해 고정적인 임금 소득이 없어지는 상황에서는 재산의 객관적인 수치보다는 퇴직자가 지각하는 주관적인 충분함의 수준이 구매력을 결정할 것이다.

(6) 퇴직전 직업-가족갈등 수준

퇴직전 직업-가족갈등 수준은 직장과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역할 요구를 상호 양립시키기 어려울 때 일어나는 역할간 갈등의 한 형태(Greenhaus & Beutell, 1985)로, 가족생활이 중심으로 부상하는 퇴직 이후의 생활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가정인으로서의 성공은 퇴직 후 주어지는 상황적 변인보다는 퇴직전 가족생활을 얼마나 충실히 수행하였는가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퇴직전 직업과 가족간 갈등 수준에 따라 직업에 대한 태도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7) 퇴직에 대한 수용 수준

퇴직 그 자체를 수용한다는 것은 퇴직 후 다가올 생활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기대와도 연결된다. 특히 퇴직은 성인기 이후 지속해 온 조직생활에서 벗어나 한 자연인으로 전이하는 생활사건의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퇴직 그 자체를 수용한다는 퇴직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는 퇴직 후 생활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새로

운 가능성에 대해서 기대를 갖는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2) 가족특성 변수

(1) 가족유형

가족유형은 얼음을 담는 그릇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얼음의 모양을 결정하는 토대로, 퇴직 남성 가족의 일상생활 반경을 제약하는 요소가 된다. 따라서 가족유형에 따라 여가 및 가족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2) 미혼자녀수

우리 나라에서는 자녀를 모두 출가시켰다는 것이 부모의 도리를 다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미혼자녀수는 퇴직남성의 생활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실제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20대에서부터 70대에 이르는 응답자 1,60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한국여성개발원, 1992)에서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 범위로 1순위를 차지한 것이 '자녀를 결혼시킬 때까지'로 나타났다. 노인의 은퇴결정에 대한 연구(권문일, 1996)에서도 취학자녀수와 미혼자녀수는 교육 및 결혼관련 비용에 투자되어야 하는 재정적 자원의 크기를 반영하기 때문에 퇴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3) 가족원의 퇴직에 대한 수용 수준

가족은 내적으로는 구성원들의 생활의 변화에 대한 적응이나 충격완화를 위한 보완적 장치의 역할을 하고, 외적으로는 구성원들을 사회변화로부터 보호하고 대응해 나갈 수 있는 기지의 역할을 한다(박충선, 1995). 따라서 가족원이 퇴직에 대해서 어느 수준의 수용을 보이는지가 퇴직남성의 생활태도 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 퇴직전 직업특성 변수

(1) 퇴직전 직종

퇴직 남성에게 있어 직종은 단순히 경험의 차이를 가져다주는 수준이 아니라 생활수준 및 생활양식,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규정하는 요인이다.

된다. 일반적으로 전문직, 관리직에서 퇴직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만큼 직업 위신도 높으며, 또한 직업 생활에서 요구하는 것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퇴직후에도 직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 직업생활에서 충분히 성공을 하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퇴직후에는 성취지향적인 직업생활에서 벗어나서 좀더 편안한 일상생활을 원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결과 오히려 여가 및 가족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비해 사무직은 조직체에서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업무로, 20세기에 들어와서 정보의 기록, 처리, 저장에 필요한 방대한 인력 수요의 결과 증가된 직종이다(통계청, 1997, 59). 따라서 이런 직종에서 퇴직을 한 경우에는 퇴직이 직업 일에서 벗어나게 하는 생활의 전이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지각에 따라 직업, 여가 및 가족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2) 퇴직이유

퇴직이유는 자발적인 퇴직이거나 어느 정도 예상한 퇴직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퇴직후의 일상 생활에 대한 계획 및 설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에 따라 생활태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강제 퇴직을 한 경우에는 역할상실감, 경제적 어려움, 직업에 대한 사명감에서 좌절을 경험하는 수가 많으며(장인협·최성재, 1992, 171), 이러한 퇴직 경험으로 인해 여가 및 가족에 대한 태도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3) 퇴직시기

퇴직시기는 퇴직후의 재취업의 기회와 관련되며, 개인적으로도 본인의 퇴직생활을 수용할 수 있는가 여부와도 관련되기 때문에 태도 유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서울시 퇴직 남성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살펴본 연구(심은경, 1983)에서도 퇴직한 핵수는 가정생활 적응과 무관하였으나 퇴직시기는 영향을 미쳐, 적절한 시기에 퇴직한 경우 가장 원만하게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퇴직전 직업만족도

퇴직전 직업만족도는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

했는가 여부뿐만 아니라 재취업에 대한 기대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직업, 여가, 가족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퇴직전 직업만족도를 살펴본 연구를 보면, 퇴직전 직업만족도가 높을수록 퇴직을 원하지 않으며, 퇴직전 직업만족도가 낮을수록 조기 퇴직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결과(Kilty & Behling, 1985)와, 그 반대의 결과를 보이는 연구결과(Fillenbaum, 1971; Goudy, Powers, & Keith, 1975)들이 있다.

(5) 퇴직전 이직경험 정도

퇴직전 다른 직장 또는 사업체로 이직한 경험이 많은 경우에는 그 분야에서 요구하는 기술 및 지식에 대한 인적 자본 투자가 적게 이루어져 직무에서 특별히 요구하는 인적 자본을 충족하기 어려웠을 것이다(권문일, 1996). 특히 현 퇴직 남성의 경우 우리 나라 산업화 초기부터 직장생활을 한 경우이기 때문에, 회사 창업과 함께 직장생활을 한 경우가 많을 것이다. 따라서 이직을 하지 않고 한 직장에 몸담고 있었다는 것은 직장이 단순히 경제적 수단이 기보다는 운명을 함께 하는 동반자의 의미도 갖게 되기 때문에 퇴직후에도 직업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 수 있을 것이다.

3. 퇴직후 적응도

원래 적응은 대인관계에서 야기되는 상대방의 요구나 기대 또는 집단생활에서 경험하는 집단의 규범에 대하여 개인이 적절히 조정하면서 행동을 취하는 것이다(서병숙, 1988). 따라서 퇴직남성이 스스로가 퇴직 이후의 생활변화를 잘 조정하면서 적절한 행동을 취하는 퇴직이후의 노후적응은 퇴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개인적 차원에서 자신의 신체적, 사회적 변화를 수용하면서, 인생의 목적을 긍정적으로 지각하며, 일상생활에서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잘 대응하면서 삶을 통합하는 내용을 포괄하는 퇴직 후 적응도라는 개념을 사용하고자 한다.

III. 연구문제 및 변수의 정의

1. 연구문제

- 〈연구문제 1〉 퇴직 남성의 생활태도는 직업, 여가, 가족에 대한 태도에 의해 어떻게 유형화 되는가?
- 〈연구문제 2〉 유형화된 각 집단은 개인특성 변수, 가족특성 변수, 퇴직전 직업특성 변수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유형화된 각 집단의 퇴직후 적응도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2. 변수의 정의

1) 퇴직

퇴직은 장인협과 최성재(1993, 157)의 정의에 따라 퇴직연금을 받고 있거나 지난 1년간 전임으로 고용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2) 생활태도

생활태도란 퇴직한 남성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때 중요한 생활영역에서 보이는 태도로, 직업에 대한 태도란 퇴직 남성이 직업에 대해 의미와 중요성을 부여하며, 선호하는 생활영역이라고 평가하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재취업하고자 하는 의도나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여가에 대한 태도란 퇴직 남성이 여가에 대해 의미와 중요성을 부여하며, 여가를 선호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형성된다면 여가시간을 늘리고자 하는 의도나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가족에 대한 태도란 퇴직남성이 가족에 의미를 두며, 가족원과의 상호작용을 선호하고, 실제 가족원과 보내는 시간을 늘리거나 지원하고자 하는 의도나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3) 퇴직후 적응도

퇴직후 적응도는 퇴직 남성 스스로 퇴직 이후 자신의 신체적, 사회적 변화를 수용하면서 긍정적으로 인생목적을 수용하며,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조화를 이룬 정도라고 정의

하였다.

직장이나 사업체로 이직한 횟수라고 정의하였다.

4) 가정경제만족도

가정경제만족도는 퇴직 남성이 퇴직후 가족이 처한 경제적 상황과 그 상황에 대한 주관적 판단에서 오는 만족도라고 정의하였다.

5) 퇴직전 직업-가족갈등 수준

퇴직전 직업-가족갈등 수준은 과거 직업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배우자 및 자녀관계, 가족과의 여가활동, 집안 일에서 곤란을 겪은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6) 퇴직에 대한 수용 수준

퇴직에 대한 수용 수준은 퇴직을 수용하고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7) 가족원의 퇴직에 대한 수용 수준

가족원의 퇴직에 대한 수용 수준은 퇴직자가 지각한 부인과 자녀가 자신의 퇴직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일상적인 내조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자신의 퇴직을 부담스러워 하지 않는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8) 퇴직전 직종

퇴직전 직종은 퇴직전에 가진 직업의 종류로, 홍두승, 구해근(1995, 246)이 분류한 것을 토대로, 전문직은 의사, 변호사, 대학교수직에서 퇴직한 경우이고, 관리직은 4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 부장급 이상의 기업체 간부직에서 퇴직한 경우이며, 전문기술직은 약사, 설계사, 엔지니어, 그리고 초, 중, 고등학교 교사직에서 퇴직한 경우라고 정의하였다. 사무직은 과장급 이하의 회사원, 5급 이하의 공무원, 은행원, 사회단체 직원에서 퇴직한 경우라고 정의하였다.

9) 퇴직전 직업만족도

퇴직전 직업만족도는 퇴직전 직업과 그 직업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만족감의 정도로 정의하였다.

10) 퇴직전 이직경험 정도

퇴직전 이직경험 정도는 직장생활을 할 때 다른

IV. 연구방법

1. 조사대상자 및 본조사

본 연구는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며, 전문직, 관리직, 전문기술직, 사무직에서 퇴직한 지 6개월부터 5년 이내에 있는 남성을 대상으로, 1998년 11월 17일부터 1999년 1월 6일까지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330부의 질문지를 배포하여 이 중 298부를 회수(회수율 87.9%)하였으며, 회수된 질문지 중 이 연구의 조사대상자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질문지 13부를 제외한 285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2. 측정도구의 구성

1) 생활태도 척도

직업에 대한 태도 척도는 퇴직결정 및 퇴직후 생활계획에 대한 연구들(권문일, 1996; 심은경, 1983; 이승아, 1998; Richardson & Killy, 1992)에서 사용한 직업지향성 및 직업에 대한 태도 척도를 토대로, 직업에 대한 인지적, 평가적, 행동적 요인이 포함될 수 있도록 본 연구자가 수정, 보완하여 총 9문항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Cronbach의 α 값이 .75로 신뢰할 만한 수준이었다.

여가에 대한 태도 척도는 Ragheb와 Beard(1982)의 여가에 대한 태도 척도(Lesisure Attitude Scale: LAS)와 퇴직결정 및 여가활동과 여가에 대한 태도를 살펴본 연구들(권문일, 1996; 한국여성개발원, 1992)에서 사용한 척도를 토대로, 여가에 대한 인지적, 평가적, 행동적 요인이 포함될 수 있도록 본 연구자가 수정, 보완하여 총 9문항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Cronbach의 α 값이 .76으로 신뢰할 만한 수준이었다.

가족에 대한 태도 척도는 남성 퇴직자나 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 가족지지를 살펴본 연구들(김정현, 1995; 김향은 · 정옥분, 1992; 심은경, 1983; 최성재,

1989 등)에서 사용한 가족지향성 및 가족친밀감 척도를 토대로, 가족에 대한 인지적, 평가적, 행동적 요인이 포함될 수 있도록 본 연구자가 수정, 보완하여 총 9문항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Cronbach의 α 값이 .81로 신뢰할 만한 수준이었다.

2) 퇴직후 적응도 척도

퇴직후 적응도를 측정하는 척도는 긍정적인 인생 목적 수용 정도와 일상생활 적응도라는 두 가지 하위차원으로 구성하였다. 긍정적인 인생목적 수용 정도 척도는 Frankl(1968)이 개발한 인생목적 척도 (Purpose In Life)를 보완해서 사용한 김정현(1995)의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총 4문항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다. 일상생활 적응도 척도는 노인의 생활적응과 생활만족 및 가족생활에 대한 연구들 (김정현, 1995; 김종숙, 1986; 박경란, 1988; 백근영, 1993; 서병숙, 1988; 심은경, 1983; 한국여성개발원, 1992 등)에서 사용한 척도를 토대로 본 연구자가 수정, 보완하여 총 4문항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다. 퇴직후 적응도 척도는 Cronbach의 α 값이 .80으로 신뢰할 만한 수준이었다.

3) 가정경제만족도 척도

가정경제만족도 척도는 현재 생활비 수준, 소비 수준, 재산 수준, 채무 수준, 위급시 대비할 수 있는 여유 자금 수준, 자녀들을 도와줄 수 있는 여유 자금 수준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는 척도로, 총 6문항의 5점 리커트 척도이며, Cronbach의 α 값이 .89로 신뢰할 만한 수준이었다.

4) 퇴직전 직업-가족갈등 수준 척도

퇴직전 직업-가족갈등 수준 척도는 Small과 Riley (1990)의 직업전이 척도(Work Spillover Scale)를 바탕으로 본 연구자가 수정, 보완하여 총 6문항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다. Cronbach의 α 값이 .87로 신뢰할 만한 수준이었다.

5) 퇴직에 대한 수용 수준 척도

퇴직에 대한 수용 수준 척도는 퇴직 예정자 및

퇴직자를 대상으로 퇴직에 대한 태도를 살펴본 연구들(이승아, 1998; 최성재, 1989; 태원경, 1995; 허정무, 1993; 호정화, 1998; Fillenbaum, 1971; Glamser, 1976)에서 사용한 척도를 토대로 본 연구자가 수정, 보완하여 총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척도의 Cronbach의 α 값은 .82로 신뢰할 만한 수준이었다.

6) 가족원의 퇴직에 대한 수용 수준 척도

가족원의 퇴직에 대한 수용 수준 척도는 노년기 및 퇴직후 적응과 가족의 지지를 살펴본 연구들(김정현, 1995; 김희정, 1997; 서병숙, 1988; 심은경, 1983)에서 사용한 척도를 토대로 본 연구자가 수정, 보완하여 총 5문항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다. 이 척도의 Cronbach의 α 값은 .80으로 신뢰할 만한 수준이었다.

7) 퇴직전 직업만족도 척도

퇴직전 직업만족도 척도는 직무관련 변수 및 직업만족도를 살펴본 연구들(김정숙, 1997; 김정현, 1995; 호정화, 1998; 황택순, 1992; 황현주, 1994)에서 사용한 척도를 토대로 본 연구자가 수정, 보완하여 총 6문항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척도의 Cronbach의 α 값은 .72로 신뢰할 만한 수준이었다.

8) 퇴직전 이직횟수 척도

퇴직전 이직횟수 척도는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 다른 직장 또는 사업체로 이직한 횟수를 측정하는 척도로,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 다른 직장 또는 사업체로 이동하지 않은 경우에는 0점, 1회 이동한 경우 1점, 2회 이동한 경우 2점, 3회 이동한 경우 3점, 4회 이동한 경우 4점, 5회 이동한 경우 5점, 6회 이상 이동한 경우 6점을 주었다.

3. 자료분석방법

조사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 평균, 백분율을 구하였으며, 생활태도 유형을 나누기 위해 군집분석을 실시하였고 이 유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 및 추후검증 (Scheffé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유형별 차이를 설명하는 중요변수를 밝히기 위해서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유형별 퇴직후 적응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일원분산분석 및 추후검증 (Scheffé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SPSS/PC+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V. 연구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개인 특성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평균 57.3세로, 그 당시 교육수준에 비해 높은 학력의 소유자들로 과반수가 도시출신이며,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 퇴직과 무관하게 종교생활을 영위해 오고 있었다.

다음, 조사대상자의 가족특성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절대 다수가 자가를 소유한 상태에서 핵가족을 이루면서 미혼자녀와 함께 살고 있으며 한달 평균 생활비로 170만원 정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평균 1억원 정도의 동산과 2억 7천만원 정도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조사대상자의 퇴직전 직업특성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대다수가 아직 경험 없이 평균 55.9세에 퇴직을 하였으며, 거의 반수가 직업 정년 때문에 퇴직하였는데, 본인 스스로는 이른 시기에 퇴직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조사대상자의 퇴직후 생활특성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퇴직자의 과반수가 퇴직후 생활에서 고려한 사항으로 소득을 보충하는 것을 들었듯이 수입관련 일을 하거나 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퇴직전 후를 비교해 볼 때 생활에 변화가 없거나 나빠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대중매체나 친구 및 친척의 조언에서 퇴직 준비 정보를 얻었다.

조사대상자의 주관적 특성은 <표 5>에 제시되어 있듯이 퇴직전 직업만족도는 중간수준 이상으로 높

<표 1> 조사대상자의 개인특성 (N=285)

특성	집단	빈도(%)
연령	51-59세	191(67.0)
	60-69세	93(32.6)
	70세	1(0.4)
	평균	57.3세
교육수준	초졸	8(2.8)
	중졸	13(4.6)
	고졸	91(31.9)
	대학	154(54.0)
	대학원수료 이상	19(6.7)
출신지역	농촌출신	129(45.3)
	도시출신	156(54.7)
현재거주지	서울	166(58.2)
	수도권	119(41.8)
종교	기독교	75(26.3)
	불교	63(22.1)
	천주교	29(10.2)
	무교	113(39.6)
	기타	5(1.8)
종교생활 계기	퇴직과 무관	155(90.1)
	퇴직준비하면서	8(4.7)
	퇴직후 시작	9(5.2)
종교생활 기간	1-9년	23(13.4)
	10-19년	37(21.5)
	20-29년	37(21.5)
	30-39년	35(20.4)
	40-49년	14(8.1)
	50-61년	12(7.0)
	무응답	14(8.1)
	평균	22.3년
종교생활 형태	예식 꼭 참석	67(39.0)
	예식 가끔 참석	77(44.8)
	거의참석 안함	16(9.3)
	이름만 종교인	12(6.9)

았으나 퇴직전 직업역할과 가족역할 사이에서 중간 정도의 갈등을 경험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가족원의 퇴직에 대한 수용 수준은 중간수준 이상이었으나 본인은 자신의 퇴직을 중간수준보다 좀 낮은 수준으로 수용하며, 가정경제에 대해서도 중간수준으로 만족하는 가운데 퇴직후 적응도는 중간수준보다 조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조사대상자의 가족특성 (N=285)

특성	집단	빈도(%)
가족유형 및 주거형태	핵 가족	216(75.8)
	부부 단독 가족	50(17.5)
	친부모 직계 가족	16(5.6)
	기혼자녀 직계 가족	3(1.1)
	자 가	254(89.1)
	전 세	28(9.8)
미혼자녀	월 세	3(1.1)
	없 다	40(14.0)
	있 다	245(86.0)
한달평균 생활비	평 균	미혼자녀 수 1.7명
	100만원 미만	50(17.5)
	100~199만원	113(39.6)
	200~299만원	78(27.4)
	300~399만원	25(8.8)
	400만원 이상	7(2.5)
보유재산	무응답	12(4.2)
	평 균	169.2만원
	〈동 산〉	
	5천만원 미만	87(30.5)
	5천~1억	98(34.4)
	1억1천~2억	3(1.0)
보유재산	2억1천 이상	25(8.8)
	무응답	72(25.3)
	평 균	1억8십만원
	〈부동산〉	
	1억 미만	40(14.0)
	1~2억9천	121(42.5)
보유재산	3~4억9천	44(15.4)
	5억 이상	33(11.6)
	무응답	47(16.5)
	평 균	2억6천6백5십만원

〈표 3〉 조사대상자의 퇴직전 직업특성 (N=285)

특성	집단	빈도(%)
퇴직연령	45~49세	24(8.4)
	50~59세	194(68.1)
	60~65세	67(23.5)
	평균	55.9세
퇴직전 직종	전문직	11(3.8)
	관리직	115(40.4)
	전문기술직	20(7.0)
	사무직	139(48.8)
이직경험	전혀 없음	227(79.6)
	같은 직종으로	23(8.1)
	다른 직종으로	35(12.3)
이직횟수	0회	227(79.6)
	1회	41(14.4)
	2회	14(4.9)
	3회	0(0.0)
	4회	2(0.7)
	5회	1(0.4)
퇴직사유	직업 정년	122(42.8)
	건강상 이유	19(6.7)
	쉬고 싶어서	34(11.9)
	직장에서 원해서	84(28.1)
	후배를 위해서	11(3.9)
	기타	19(6.7)
퇴직시기	적절한 시기	132(46.3)
	이른 시기	142(49.8)
	늦은 시기	11(3.9)

〈표 5〉 조사대상자의 주관적 특성

주관적 특성	평균	표준편차	점수범위(중간값)
퇴직후 적응도	23.77	5.02	8 ~ 40 (24)
퇴직전 직업-가족갈등 수준	19.26	4.98	6 ~ 30 (18)
퇴직전 직업만족도	20.87	3.58	6 ~ 30 (18)
가정경제만족도	17.92	4.52	6 ~ 30 (18)
퇴직에 대한 수용 수준	17.86	4.64	6 ~ 30 (18)
가족원의 퇴직에 대한 수용 수준	15.48	4.02	5 ~ 25 (15)

〈표 4〉 조사대상자의 퇴직후 생활특성 (N=285)

특성	집단	빈도(%)
퇴직후 상태	수입관련일 안함	116(40.7)
	수입관련일 함	95(33.3)
	구직 중	70(24.6)
	기타	4(1.4)
* 기타: 농촌생활 고려		
퇴직후 소득원 (복수응답)	퇴직연금	149(52.3)
	증권배당금	11(3.9)
	은행이자	105(36.8)
	임대소득	56(19.6)
	보험배당금	17(6.0)
	자녀들의 용돈	31(10.9)
	시간제 직업소득	84(29.5)
	기타	9(3.2)
퇴직후 시간사용 변화	없음	31(10.9)
	있음	254(89.1)
	여가시간 증가	77(30.3)
	가족시간 증가	88(34.6)
	친구시간 증가	34(13.4)
	가사노동시간 증가	38(15.0)
퇴직후 시간관념	기타	17(6.7)
	하루단위생활	70(24.6)
	1주일단위생활	88(30.9)
	한달단위생활	34(11.9)
퇴직후 생활에서 고려한 사항 (복수응답)	생활계획 안함	93(32.6)
	이사(경제적 이유)	58(20.4)
	이사(주거환경고려)	53(18.6)
	집규모 줄이기	45(15.8)
	시간 보내기	106(37.2)
	소득 보충	173(60.7)
	집안일 참여	63(22.1)
	이전 취미활동	98(34.4)
	새로운 취미활동	80(28.1)
	기타	7(2.5)
퇴직준비 정보원천 (복수응답)	직장퇴직프로그램	6(9.1)
	친구, 친척조언	141(49.5)
	대중매체	158(55.4)
	퇴직자 모임	35(12.3)
	정보 얻지 못함	42(14.7)
	기타	5(1.8)
* 기타: PG통센 등		
퇴직전, 후를 비교했을 때 생활기대	상당히 나아짐	7(2.5)
	나아짐	73(25.6)
	거의 변화없음	112(39.3)
	나빠짐	88(30.9)
	아주 나빠짐	5(1.8)

〈표 6〉 생활태도의 전반적 경향

변수	평균	표준편차	점수범위(중간값)
직업에 대한 태도	35.08	4.65	9 - 45 (27)
여가에 대한 태도	33.70	4.49	9 - 45 (27)
가족에 대한 태도	37.82	4.50	9 - 45 (27)

2. 생활태도의 전반적 경향

〈표 6〉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남성 퇴직자는 직업, 여가 및 가족에 대해서 의미와 중요성을 부여 하며, 선호하는 생활영역이라고 평가하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재취업하거나 여가시간을 늘리거나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늘리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3. 생활태도 유형화

1) 생활태도 유형화

남성 퇴직자의 생활태도를 유형화하기 위해 직업, 여가, 가족에 대한 태도라는 세 차원을 기준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군집분석은 대상들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특성이 가지고 있는 유사성을 토대로 동질적인 집단으로 묶어주는 방법으로, 동일 집단 내 공통된 특성들을 조사하기 위해 이용된다(Hair Anderson, Tathan, & Black, 1998, 481). 세 가지 차원의 선택·조합에 따라 가설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모형의 수는 중앙값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덟 가지가 된다. 그러나 유형화의 목적이 다수의 개별 사례들을 유사한 특성을 가진 적은 수의 군집으로 축약하여 연구된 현상을 체계화시키는 것(Miller & Olson, 1990, 68-86)이므로, 유형의 수가 지나치게 많으면 유형화의 장점을 제대로 살리지 못할 수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 실시되는 판별분석을 위해서는 가장 작은 집단의 사례수가 독립변수의 개수보다 커야한다¹⁾(양병화, 1998, 135). 따라서 각 집단의 사

1) 판별분석을 위해서는 가장 작은 집단의 사례수가 독립 변수의 개수보다 커야 하는데, 그 이유는 집단의 사례수

례수는 독립변수의 개수인 15보다 커야한다.

이러한 전제 조건을 충족하는 군집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실증적으로 가능한 집단의 수와 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판별분석을 고려하여 유형화를 시키고 각 경우의 빈도와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네 개 집단으로 유형화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²⁾.

2) 생활태도 유형의 명칭

유형 1은 직업에 대한 태도의 경우 양의 값을 가지지만 여가와 가족에 대한 태도는 음의 값을 갖는 것(+, -, -)으로, 이러한 유형은 우리나라 일반적인 남성들의 생활에서 직업이 갖는 중요성을 드러낸 것으로, 퇴직이라는 전이를 경험하였어도 여전히 직업에 의미를 두고, 선호하는 생활영역이라고 평가하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시 재취업을 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유형이다. 이러한 유형은 직업과 가족이 이분화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족을 등한시해 온 산업화 제 1세대의 전형적인 생활태도 유형으로, 이러한 생활태도가 퇴직이후에도 지속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유형을 '직업 집착형'이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이 유형이 전체 사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8%이다.

유형 2는 직업, 여가 및 가족에 대한 태도가 모두 양의 값을 갖는 것(+, +, +)으로, 이 유형은 가족과 직업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시간이 허락된다면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늘리고, 직업활동도 하고 싶어한다. 그리고 여가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 시간이나 기회가 주어진다면 새로운 여가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태도를 가진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유형을 '총체적 긍정형'이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이 유형이 전체 사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9%이다.

유형 3은 여가에 대한 태도의 경우 양의 값을 가지지만 직업과 가족에 대한 태도는 음의 값을 갖는 것(-, +, -)으로, 이 유형은 여가활동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시간이 허락된다면 여가활동을 하고자 하면서도 직업과 가족에 대해서는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태도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유형은 다른 생활차원보다 여가에 긍정적인 의미를 보이는 집단이므로 '여가 긍정형'이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이 유형이 전체 사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이다.

유형 4는 직업, 여가 및 가족에 대한 태도가 모두 음의 값을 가지며(-, -, -), 특히 이 유형은 다른 유형에 비해 여가에 대한 태도 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유형은 '총체적 부정형'이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이 유형이 전체 사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3%로 가장 적다.

4. 생활태도 유형의 판별요인

1) 판별함수의 구성

판별분석에 앞서 독립변수들간 다중공선성이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피어슨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³⁾하였는데 각 독립변수들간 상관계수가 .58 이하로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었으며, 공변량 행렬의 동질성을 검증하는 통계치인 Box's M⁴⁾을 살펴본 결과 유의도가 .52이므로 본 판별분석의 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

가 독립변수의 개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오차에 대한 자유도가 작아져 통계적 검증력이 낮아지며, 변량-공변량 행렬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집단 표본이 동일한 정보를 갖게 되어 검증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양병화, 1998, 135). 따라서 가장 작은 집단의 사례 수가 13인 다섯 개 집단, 가장 작은 사례수가 9인 여섯 개 집단, 가장 작은 집단의 사례수가 11인 여덟 개 집단은 판별분석에 적절한 유형이라고 볼 수 없다.

- 2) 생활태도 유형의 집단수별 빈도 및 표준화된 점수의 부호 표와 생활태도 유형별 각 하위차원 점수의 일원분산 분석 표는 <부록>에 제시되어 있음.
- 3) 판별식에 포함된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표는 <부록>에 제시되어 있음.
- 4) Box's M의 유의도가 .05 이하가 된다면 공변량 행렬의 동질성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판별분석의 기본 가정이 위배되게 된다. 또한 공변량 행렬의 동질성은 정규분포 가정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만약 공변량 행렬이 동일하지 못한 경우에는 아울러 정규분포의 가정도 위배될 가능성이 크다(양병화, 1998, 136-137).

이러한 판별분석을 위한 전제 조건이 성립되는지를 살펴본 후 이 분석에서는 독립변수가 단계별⁵⁾로 분석에 투입되는 방식을 사용하여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네 집단을 구분하기 위해서 추출된 세 개의 판별함수 중 함수 1, 2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알 수 있다. 즉 함수 1에 의해 집단구분이 가장 잘 분류되어 집단 분류의 52.28%를 설명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함수 2가 30.76%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표 8>에 제시되어 있는 결과처럼, 함수 1을 설명하는 변수들은 퇴직전 직업만족도, 퇴직사유, 퇴직전 직종, 퇴직전 직업-가족갈등 수준, 미혼자녀수로 나타났다. 즉 남성 퇴직자의 생활태도 유형은 퇴직전 직업생활에서 경험했던 직업만족도와 직종이 가져다주는 생활수준 및 생활양식의 차이와 그러한 직장생활과 가족생활을 병행하면서 겪었던 갈등 경험, 그리고 실제 퇴직을 하게 된 이유, 그리고 현재 미혼자녀수에 따라서 가장 잘 판별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함수 1은 퇴직전 직업특성과 퇴직전 직업-가족갈등 수준으로 대별되는 개인특성, 그리고 미혼자녀수로 대별되는 가족특성이 하나의 요인으로 구성된 것으로, '퇴직전 직업-가족경험 및 미혼자녀수' 요인으로 명명할 수 있다.

함수 2를 설명하는 변수들은 퇴직에 대한 수용 수준, 가족원의 퇴직에 대한 수용 수준, 퇴직시기, 종교생활기간, 교육수준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 퇴직자가 퇴직을 수용하는 수준, 그리고 남성 퇴직자가 지각한 가족원이 퇴직을 수용하는 수준,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 퇴직을 했는가 여부, 그리고 퇴직후 생활을 영위할 때 중요한 자원이 되는 종교생활기간과 교육수준이라는 개인특성 변수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이 변수들의 공통된 속성은 퇴직수용 및 개인자원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함수 2는 '퇴직수용 및 개인자원' 요인으로 명명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현대 산업사회에서 직장이라는 조직은 주된 삶의 부분이 되며, 인간 행동과 선택에 배경막이 되어 준다. 따라서 직장생활 경험은 일상생활 경험의 주된 부분이 되며(Smith, 1981, 75), 특히 우리 나라의 경우 급속한 경제발전 과정에서 개인의 생활이나 사적 영역은 경시되는 한편 공적 영역이 비대해지고 중요해짐에 따라 경제성장을 주도해 온 정부나 기업의 영향력이 그 어느 때 보다 강하게 작용(손승영, 1997)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기를 지나온 현 남성 퇴직자는 퇴직을 하였어도 삶의 연속차원에서 퇴직전 직업생활 경험의 퇴직후 생활태도 유형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퇴직전 직장생활 경험의 결정체인 퇴직전 직업만족도와 직종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했는가 여부 뿐만 아니라 재취업에 대한 기대와 관련이 된다. 특히 직종은 단순히 경험의 차이를 가져다 주는 수준이 아니라 생활수준 및 생활양식을 결정하기 때문에 퇴직후 생활태도 유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퇴직사유는 자발적인 퇴직이거나 어느 정도 예상한 퇴직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퇴직의 경우 퇴직후 생활계획 및 설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퇴직 후 생활태도 유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퇴직이후의 사회심리적 영향을 살펴본 연구(김애순·윤진, 1995)에서도 자발적인 퇴직이거나 어느 정도 예상한 퇴직인 경우에는 퇴직 상황을 새로운 것을 추구할 수 있는 도전 상황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전 직업-가족갈등 수준도 퇴직후 생활영역이 직장에서 가족으로 전환되면서 가족이 하나의 적응 장소로 부각되기 때문에 퇴직후 생활태도 유형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5) 단계별 투입방식은 독립변수의 수가 많을 때 유용한 방법이다(이영준, 1995, 397).

<표 7> 판별함수의 유의도

함수	고유치	설명변량	정준상관	유의도
1	.1195	52.28	.3267	.0000
2	.0703	30.76	.2563	.0441
3	.0388	16.96	.1932	.2292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자녀의 결혼이 부모의 책임으로 간주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미혼자녀수가 남성 퇴직자의 생활태도 유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현 퇴직 남성이 직업생활에 몰입한 것은 가족부양자 의무 차원에서도 설명되기 때문에 퇴직전에 자녀들을 다 출가시키지 못한 것을 부모, 특히 가장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부담을 느낄 수 있다. 그러한 부담감에 따라서 퇴직후 생활태도 유형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한편 남성 퇴직자의 생활태도 유형은 앞에서 제시한 '퇴직전 직업-가족경험 및 미혼자녀수' 요인 외에 스스로 퇴직을 어떻게 수용하며, 실제 퇴직후 직업영역에서 가족영역으로 삶이 전환되면서 주된 상호작용 대상이 되는 가족원이 자신의 퇴직을 어떻게 수용하는가, 그리고 실제 퇴직한 시기, 종교생활기간과 교육수준에 따라서도 판별됨을 알 수 있다. 즉 본인과 가족원이 보이는 퇴직 수용 수준이 퇴직후 생활태도 유형을 결정할 때는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더욱이 가족은 내적으로는 구성원들의 생활의 변화에 대한 적응이나 충격완화를 위한 보완적 장치의 역할을 하고, 외적으로는 구성원들을 사회변화로부터 보호하고 대응해 나갈 수 있는 기지(基地)의 역할을 한다(박충선, 1995).

그리고 퇴직시기는 퇴직후 재취업의 기회와 관련되며, 개인적으로도 자신의 퇴직을 수용할 수 있는가 여부와 관련되기 때문에 생활태도 유형에 영향

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퇴직후 일상생활을 영위할 때 종교는 퇴직자에게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사회관계망을 확대시키는 역할도 한다. 그리고 종교의 의미는 생활 속에서 구현되기 때문에 종교생활기간이 생활태도 유형을 결정하는 중요한 개인자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교육수준 역시 개인에게 상이한 삶의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보다 융통성있는 가치를 갖게 하기 때문에 종교생활기간과 더불어 생활태도 유형을 결정하는 중요한 개인자원이 된다. 특히 교육수준은 광범위한 관심 및 활동과 관련되기 때문에, 교육수준은 직업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관심과 활동을 찾는데 기여를 한다(Campbell, Converse, & Rodgers, 1976, 315).

그리고 남성 퇴직자의 생활태도 유형의 분류정확률을 산출한 결과⁶⁾, 분류정확률(hit ratio)은 38.95%로, 최대기회확률기준(Maximum Chance Criteria⁷⁾)에 의해 산출된 비교기준인 37.5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판별분석은 수용 가능하다.

6) 네 가지 생활태도 유형의 분류정확률 표는 <부록>에 제시되어 있음.

7) 최대기회확률기준은 가장 표본의 수가 큰 그룹의 전체 표본에 대한 비율로서 적중률을 비교하는 기준으로, 산출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이영준, 1995, 385).

$$C_{max} = \text{최대빈도집단의 표본수} / \text{전체 표본수}$$

<표 8> 회전된 표준 판별계수

변 수	함수 1	함수 2	부분변량 F(유의도)
퇴직전 직업만족도	.48697	.03058	3.41041 ***
퇴직사유	.44025	-.01520	4.56074 ***
퇴직 전 직종	.42444	.18407	3.05165 ***
퇴직전 직업-가족 갈등 수준	-.35447	.23338	2.73598 ***
미혼자녀수	.32131	.04888	2.44975 ***
퇴직에 대한 수용 수준	.06545	-1.02503	3.86785 ***
가족원의 퇴직에 대한 수용 수준	-.01042	-.48692	2.57313 ***
퇴직시기	.07527	.47173	2.17809 ***
종교생활기간	.04342	.37208	2.06237 ***
교육수준	-.20505	.32055	2.29955 ***

5. 생활태도 유형별 특성

생활태도 유형별 설명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9>에 제시되어 있다.

1) 직업 집착형

직업 집착형은 전체의 38%를 차지하는 유형으로, 이 유형은 다른 유형에 비해 개인적으로 교육수준도 높으며, 가족내 미혼자녀수가 적은 상태에서 가족원이 자신의 퇴직을 수용하는 수준도 높으나 퇴직전 직업만족도가 높은 상태에서 자신의 퇴직을 잘 수용하지 못하고 직업 역할에 대한 마련이 많은 유형이다. 그리고 그러한 직업 역할에 치중하는 자세가 퇴직전에도 가족간 갈등을 일으켰던 유형이다.

2) 총체적 긍정형

총체적 긍정형은 전체의 29%를 차지하는 유형으로, 이 유형은 다른 유형에 비해 전문직, 관리직, 전문기술직에서 퇴직한 사람들이 많으며, 퇴직이전에도 직업과 가족이라는 이분화된 상황 속에서도 두 영역간 갈등을 최소화하여 왔고, 퇴직전 직업생활에 대해서도 만족하며, 퇴직 그 자체도 잘 수용하는 유형이다.

3) 여가 긍정형

여가 긍정형은 전체의 20%를 차지하는 유형으로, 이 유형은 다른 유형에 비해 교육수준이 낮고 종교

생활기간이 짧으며, 일반사무직 및 일반공무원으로 퇴직한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총체적 긍정형과 대비되며 퇴직전 직업만족도도 낮았으며, 퇴직의 시기도 적절하지 않고, 퇴직사유도 개인의 사정이나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직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본인의 퇴직에 대한 수용수준과 가족원의 퇴직에 대한 수용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총체적 부정형

총체적 부정형은 전체의 13%를 차지하는 유형으로, 이 유형은 다른 유형에 비해 미혼자녀수가 많은 것이 특징이며, 전문직, 관리직, 전문기술직에서 퇴직한 경우가 반수를 차지하며, 직업정년에 해당되어 퇴직하였고, 본인 스스로도 적절한 시기에 퇴직하였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퇴직전 직업-가족갈등 수준이 높은 상태에서 퇴직에 대한 수용수준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6. 생활태도 유형별 퇴직후 적응도의 차이

<표 10>에 제시된 결과처럼 퇴직후 적응도는 총체적 긍정형이 다른 유형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F=11.17$ $p<.001$)를 보였다. 즉 생활태도가 모두 긍정적인 총체적 긍정형의 퇴직후 적응도가 가장 높아서 다른 집단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총체적 긍정형의 퇴직후 적응도 점수는 척도의 중간값(24점)보다 높았으며, 다른 세 유형의

<표 9> 생활태도 유형별 설명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변수\유형	직업 집착형	총체적 긍정형	여가 긍정형	총체적 부정형
퇴직전 직업만족도	20.55(3.33)	22.02(3.36)	19.97(4.00)	20.66(3.66)
퇴직에 대한 수용 수준	17.23(3.89)	19.22(5.07)	18.05(4.78)	16.42(4.84)
퇴직사유	.36(.48)	.55(.50)	.34(.48)	.50(.51)
퇴직전 직업	.54(.50)	.60(.49)	.34(.48)	.50(.51)
퇴직전 직업-가족 갈등 수준	19.54(4.69)	17.73(5.44)	20.16(4.47)	20.42(4.86)
가족원의 퇴직에 대한 수용수준	16.04(3.51)	14.78(4.22)	15.71(4.28)	15.05(4.39)
미혼자녀수	1.61(.99)	1.74(1.06)	1.72(.95)	1.79(.87)
교육수준	5.36(1.46)	5.17(1.55)	4.91(1.72)	5.21(1.56)
퇴직시기	.48(.50)	.50(.50)	.36(.48)	.50(.50)
종교생활기간	14.31(16.29)	13.57(16.53)	9.76(13.92)	13.92(14.47)

〈표 10〉 생활태도 유형별 퇴직후 적응도 점수의 일원분산분석

유형(빈도)	평균	표준편차	F값	Scheffé
직업 집착형(107)	22.93	4.29	11.17 ***	b
총체적 긍정형(82)	26.29	5.34		a
여가 긍정형(58)	22.90	4.59		b
총체적 부정형(38)	21.97	5.04		b

*** p<.001

퇴직후 적응도 수준은 척도의 중간값보다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직업과 가족생활을 이분화 하였던 상황에서 벗어나 직업, 여가 및 가족생활 모두를 중요하게 인식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기회나 여건이 허락된다면 직업, 여가 및 가족생활 모두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지원하고자 하는 태도로 생활하는 것이 퇴직후 적응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총체적 긍정형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균형잡힌 생활태도는 퇴직이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퇴직전 직장생활 경험과 직장생활과 가족생활 간 갈등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한 결과 형성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총체적 긍정형은 다른 유형에 비해 직업과 가족에 대해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의미를 부여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여가에 대한 태도도 여가 긍정형 다음으로 높았다. 그러므로 퇴직후 가족의 의미를 인식한다면, 이전 생활과 연속되는 측면에서 자신의 한 평생을 봄담아 온 직업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직업생활에 시간을 부여하겠다는 생활태도도 퇴직후 적응에 중요하다. 이처럼 퇴직후 직업역할이 상실되었다 하더라도 가족 및 여가에 대한 태도와 조화를 이룬다면 직업에 의미를 부여하는 태도가 퇴직후 적응과정에 도움이 됨을 알 수 있다.

VII. 결 론

이 연구의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첫째, 남성 퇴직자의 생활태도 유형은 퇴직전의 직업생활과 가족생활 경험에 따라서 직업 집착형, 총체적 긍정형, 여가 긍정형, 총체적 부정형으로 분류된다.

둘째, 남성 퇴직자의 생활태도 유형간 차이를 설명하는 판별요인은 '퇴직전 직업-가족경험 및 미혼자녀수' 요인과 '퇴직수용 및 개인자원' 요인이다. 즉 퇴직전 직업생활과 가족생활 경험, 그리고 퇴직을 수용하는 자세 및 개인자원이 퇴직후의 생활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자녀가 결혼할 때까지는 부모의 책임으로 보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으로, 미혼자녀수가 남성 퇴직자의 생활태도 유형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남성 퇴직자는 퇴직으로 인해 가족부양자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퇴직자가 사회에 기여한 바를 고려하여 퇴직자의 일정 한도 내 재산에 한해 금리(金利) 혜택을 주는 방법도 강구해 보는 것이 요구된다.

셋째, 남성 퇴직자의 생활태도 유형별 특징에서 파악된 특이한 점은 총체적 긍정형과 총체적 부정형이라는 양극단적인 유형의 특성이다. 양극단적인 두 유형은 판별요인에서 유사성이 발견되는 특이성을 나타낸다. 즉 이 두 유형은 퇴직전 직업, 퇴직사유, 퇴직시기, 종교생활기간, 미혼자녀수, 가족원의 퇴직에 대한 수용 수준 등에서 유사한 측면이 많다. 그리고 총체적 부정형의 직업만족도가 총체적 긍정형 다음으로 높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퇴직을 수용하는 수준과 퇴직전 직업-가족갈등 수준에서는 가장 큰 차이를 보인다. 결국 퇴직에 대한 수용 수준이 높고 그에 비해 퇴직전 직업-가족갈등 수준은 낮은 경우는 총체적 긍정형으로,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는 총체적 부정형이라는 극단적인 생활태도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직업생활을 할 때에도 직업과 가족 영역을 서로 공존하는 생활의 장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형별 특성에서 파악된 또 다른 특이한 점은 여가 긍정형이 갖는 특성이다. 즉 여가 긍정형의 경우 퇴직전 직업만족도가 낮았고 직업지위가 낮았던 상태에서 비자발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시기에 퇴직을 하였다고 지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원뿐만 아니라 본인이 퇴직을 수용하는 수준은 높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여가 긍정형의 퇴직전 직업생활과 가족 및 여가생활 간 관계에는 Parker(1983, 233)의 반대 가설이 적용됨을 알 수 있다. 즉 업무 상황이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대부분의 근로자는 이러한 결핍을 직장이외의 활동, 예를 들면 가족 생활이나 여가를 통해 보상을 받으려고 그러한 생활에 더 충실히 된다는 가설처럼, 이 유형의 경우에는 퇴직전에도 직업에서 어떤 삶의 의미를 갖지 못하였으며, 이런 상태에서 퇴직은 만족하지 못했던 직장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더욱이 일반사무직이나 일반공무원직에서 퇴직을 한 경우에는 퇴직 이전까지 비교적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담당하였기 때문에 퇴직이 단순, 반복적인 직업 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생활의 전이가 된다. 또한 이 유형에 속한 사람들은 승진과 경쟁체제로 점철된 조직사회에서 어느 측면으로는 소외된 집단이다. 따라서 다른 어떤 영역보다 상대적으로 가족영역이 소홀히 취급되었던 우리 나라의 특수한 산업화 시기를 거치면서 퇴직후에는 직업이외의 활동이 될 수 있는 여가영역에 의미를 두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시간과 여건이 허락된다면 여가활동을 하고자 하는 생활태도 유형을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 남성의 여가생활을 고려해 볼 때 여가 긍정형의 여가의 내용과 질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남성 퇴직자의 생활태도 유형 중 총체적 긍정형이 퇴직후 적응도가 가장 높다. 총체적 긍정형은 다른 유형에 비해 직업에 대한 태도와 가족에 대한 태도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여가에

대한 태도도 여가 긍정형 다음으로 높다. 그러므로 퇴직후 가족의 의미를 인식한다면, 이전 생활과 연속되는 측면에서 자신의 한 평생을 몸담아 온 직업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직업생활에 시간을 부여하겠다는 생활태도도 퇴직후 적응에 중요하다. 그러므로 퇴직자에게도 이전의 직업 경험에서 쌓인 경륜과 지식을 사회에 다시 환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국의 경우 1981년부터 제3연령 대학(University of the Third Age) 운동을 통해 새로운 노년세대의 원형이 되는 퇴직자들의 퇴직후 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즉 교직원과 학생 간 구분 없이 이전의 직업 경험을 살려서 자발적으로 가르치고 배우며,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이 운동은 노인에 대한 개념도 새로이 정립되어야 함을 보여준다(Laslett, 1996, 203-220). 우리나라에서는 퇴직후 증가된 여가시간이 창조적으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퇴직자가 여가시간을 이용해서 봉사할 수 있는 퇴직자 자문 모임이나 자원봉사 모임, 그리고 영국의 제3연령 대학처럼 지적인 욕구도 충족시킬 수 있는 단체를 활성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 참고문헌

- 권문일(1996). 노인의 은퇴결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애순, 윤진(1995). 은퇴이후의 사회심리적 영향 - 은퇴는 위기인가?- 조기퇴직과 장, 노년기의 위기문제. 제6회 노인복지 세미나. 서울:서울특별시. 한국노년학회.
- 김외숙(1991). 도시기혼여성의 여가활동 참여와 여가 장애.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정숙(1997). 기혼여성의 일에 대한 가치관과 직무관련 태도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현(1995). 가족지지가 남자노인의 은퇴스트레스 와 은퇴후 적응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상위 직종자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석사학위논문.
- 김종숙(1987). 한국노인의 생활만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향은, 정옥분(1992). 정년퇴직을 앞둔 중년남성의 심리적 불안. 대한가정학회지, 30(2), 159-170.
- 김희정(1997). 차세대 노인의 노후생활형태 인식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소정(1995). 가족이데올로기의 변화. 여성한국사회 연구회 편. 한국가족문화의 오늘과 내일. 서울: 사회문화연구소 출판부.
- 박경란(1988). 노년 여성의 생활만족도 연구 -장남 부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충선(1995). 조기퇴직자의 가족적 지원과 대책 방안. 한국노년학, 15(1), 125-137.
- 백근영(1993). 은퇴한 남자노인의 성격적응특성에 따른 적응도.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병숙(1988). 노후적응에 관한 연구 -생활만족도 및 가족의 교류도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서병숙(1996). 노인연구. 서울: 교문사.
- 손승영(1997). 경제변화에 따른 조직내 남성의 역할 변화 인식과 갈등. 제1회 건강가족상 수립을 위한 세미나. 급변하는 사회에서 중년기 남성이 겪는 갈등과 불안.
- 심은경(1983). 은퇴한 노인의 가정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병화(1998). 다변량자료 분석의 이해와 활용. 서울: 학지사.
- 양한주(1998). 중학생의 직업가치관과 직업선흐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안진(1992). 인간발달신강. 서울: 문음사.
- 이광규, 김태현, 최성재, 조홍식, 김규원(1996). 가족의 관계역동성과 문제인식. 서울: 집문당.
- 이승아(1998). 중년기 직장남성의 퇴직에 대한 태도와 퇴직 후 생활계획.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준(1995). SPSS/PC+를 이용한 다변량분석. 서울: 석정.
- 장인협, 최성재(1992). 노인복지학.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전병재, 안계춘, 박종연(1995). 한국사회의 전문직업성 연구. 서울: 사회비평사.
- 정재희(1995). 근로자의 직무유형에 따른 여가태도, 여가만족의 차이.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성재(1989). 퇴직예정자의 퇴직에 대한 태도 및 퇴직 후 생활전망의 인식에 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1, 47-65.
- 태원경(1995). 중등교원의 선호하는 은퇴시기 및 은퇴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1997). 한국사회 직업구조의 특성과 변화분석.
- 한경혜(1997). 아버지상의 변화.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 남성과 한국사회. 서울: 사회문화연구소.
- 한국여성개발원(1992). 가족의식에 관한 한국과 일본의 비교연구 -서울과 후쿠오카현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허정무(1993). 교원의 정년퇴직 준비과정과 퇴직 후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호정화(1998). 교사의 일과 은퇴에 대한 태도 연구 -성별비교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두승, 구해근(1995). 사회계층, 계급론. 서울: 다산출판사.
- 황택순(1992). 직장-가족갈등과 삶의 만족간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현주(1994). 맞벌이부부의 가정생활과 직장생활간의 역할전이.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Campbell, A., P. E. Converse, & W. L. Rodgers.(1976).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 Fillenbaum, G. G. (1971). On the Relation between attitude to work and attitude to retirement. *J of Gerontology*, 26(30), 244-248.
- Glamser, F. D. (1976). Determinants of a positive

- attitude toward retirement. *J of Gerontology*, 31(1), 104-107.
- Goudy, W. J., E. A. Powers & P. Keith. (1975). Work and Retirement:A Test of Attitudinal Relationship. *J of Gerontology*, 30(2), 193-198.
- Greenhaus, J. H. & N. T. Beutell. (1985). Sources of Conflict Between Work and Family Role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0, 76-88.
- Hair, J. F., R. E. Anderson, R. L. Tathan & W. C. Black. (1998). *Multivariate Data Analysis*. NJ: Prentice-Hall, Inc.
- Harris, D. K. & W. E. Cole. (1980). *Sociology of Aging*. Boston: Houghton Co.
- Kahn, R. P. (1989). Women and Time in Childbirth and During Lactation. In F. J. Forman & C. Sowton(eds.). *Taking Our Time - Feminist Perspectives on Temporality*. Oxford:Pegamon Press.
- Kelly, J. R. (1996). *Leisure*. Needham heights, Mass: Allyn & Bacon Co.
- Kilty, K. M. & J. H. Behling. (1985). Predicting the Retirement Intentions and Attitude of Professional Workers. *J of Gerontology*, 40(2), 219-227.
- Laslett, P. (1996). *A Fresh Map of Life -The Emergence of the Third Age-*. London: Macmillan Press Ltd.
- Levinson, D. J.(1978). *The Seasons of A Man's Life*. NY:Ballantine Books.
- Miller, B. C. & D. H. Olson. (1990). Types of Marital Interaction:Using Cluster Analysis. In W. D. Thomas & A. C. Marcos (eds.). *Family Variables -Conceptualization, Measurement, and Use-*.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 Parker, S. R. (1983). *Leisure and Work*. London: Allen & Unwin.
- Ragheb, M. G. & J. G. Beard. (1982). Measuring Leisure Attitude. *J of Leisure Research*, 14(2), 155-167.
- Richardson, V. & K. M. Kilty.(1992). Retirement Intentions Among Black Professionals: Implications for Practice with Older Black Adults. *The Gerontologist*, 32(1), 7-16.
- Small, S & D. Riley. (1990). Toward a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Work Spillover into Family Life. *J of Marriage and Family*, 52(1), 51-61.

<부 록>

<부록 1> 생활태도 유형의 집단수별 빈도 및 표준화된 점수의 부호

집단	빈도 (M,T,O)	집단	빈도 (M,T,O)	집단	빈도 (M,T,O)	집단	빈도 (M,T,O)	집단	빈도 (M,T,O)	집단	빈도 (M,T,O)
1	107 (+ + +)	1	107 (+ - -)	1	82 (+ + +)	1	66 (+ - +)	1	88 (+ + +)	1	52 (+ + +)
2	108 (- + -)	2	82 (+ + +)	2	55 (+ - +)	2	9 (+ + +)	2	61 (+ - +)	2	46 (+ - +)
3	70 (+ - +)	3	58 (- + -)	3	45 (- + -)	3	34 (+ - -)	3	35 (+ + +)	3	26 (- + +)
		4	38 (- - -)	4	90 (- + -)	4	32 (- + -)	4	17 (- + -)	4	19 (- + -)
				5	13 (- - -)	5	43 (- + +)	5	19 (+ - -)	5	25 (- - -)
						6	101 (- - -)	6	42 (- + -)	6	96 (- + -)
								7	23 (- + -)	7	10 (- - -)
									8	11 (+ - +)	

* 표에 제시되어 있는 +, - 부호는 직업, 여가, 가족의 순서로 태도 점수를 표준화시킨 것이다.

<부록 2> 생활태도 유형별 각 하위차원 점수의 일원분산분석

하위차원	유형(빈도)	평균	표준편차	F값	scheffé
직업에 대한 태도	1 유형(107)	35.71	3.35	105.35 ***	a
	2 유형(82)	38.89	2.92		b
	3 유형(58)	29.26	2.93		c
	4 유형(38)	33.95	3.74		d
	계 (285)	35.08	4.65		
여가에 대한 태도	1 유형(107)	32.64	2.48	133.01 ***	a
	2 유형(82)	35.50	3.35		b
	3 유형(58)	37.84	3.13		c
	4 유형(38)	26.47	2.63		d
	계 (285)	33.70	4.49		
가족에 대한 태도	1 유형(107)	35.46	3.72	62.03 ***	a
	2 유형(82)	42.17	2.11		b
	3 유형(58)	36.28	4.03		c
	4 유형(38)	37.42	4.37		c
	계 (285)3	37.82	4.50		

*** p<.001

〈부록 3〉 판별식에 포함된 변수들간의 상관관계 (N=285)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1.00														
2.	.14	1.00													
3.	.17	-.18	1.00												
4.	.07	-.13	.17	1.00											
5.	.20	.05	.10	.02	1.00										
6.	-.05	.05	-.11	-.11	-.24	1.00									
7.	.10	-.01	.14	.15	.50	-.28	1.00								
8.	-.23	-.05	-.05	-.05	-.19	.06	-.18	1.00							
9.	.10	-.05	.37	.09	.18	-.09	.00	-.03	1.00						
10.	.33	.09	.01	.01	.29	-.13	.31	-.26	-.03	1.00					
11.	.44	.03	-.00	.12	.18	-.09	.24	-.09	.00	.29	1.00				
12.	.12	-.12	.22	.10	.29	-.27	.28	-.08	.25	.17	.10	1.00			
13.	.06	-.10	.06	.04	-.05	-.26	-.02	-.02	.11	-.05	-.02	.07	1.00		
14.	-.39	-.12	-.03	-.01	-.26	.10	-.19	.52	-.04	-.26	-.25	-.08	-.01	1.00	
15.	-.20	.02	.00	-.07	-.53	.32	-.58	.26	.02	-.28	-.30	-.23	.00	.29	1.00

1. 연령	6. 퇴직전 직업-가족갈등 수준	11. 퇴직사유
2. 출신지역	7. 퇴직에 대한 수용 수준	12. 퇴직전 직업만족도
3. 교육수준	8. 가족유형	13. 퇴직전 이직횟수
4. 종교생활기간	9. 퇴직전 직업	14. 미혼자녀수
5. 가정경제만족도	10. 퇴직시기	15. 가족원의 퇴직에 대한 수용 수준

〈부록 4〉 네 가지 생활태도 유형의 분류정확률

실체집단	빈도	예측집단			
		직업 집착형	총체적 긍정형	여가 긍정형	총체적 부정형
직업 집착형	107	31 29.0%	29 27.1%	24 22.4%	23 21.5%
총체적 긍정형	82	10 12.2%	37 45.1%	18 22.0%	17 20.7%
여가 긍정형	58	5 8.6%	12 20.7%	28 48.3%	13 22.4%
총체적 부정형	38	8 21.1%	6 15.8%	9 23.7%	15 39.5%

분류정확률(hit ratio)=38.95%